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개조론」과 4대강 살리기의 국토재창조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위대한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선견지명의 「강산개조론」을 주창

- ① 도산 선생은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며 문명의 어머니는 ‘개조’하는 일에 노력함이라고 함
- ② 도산 선생은 문명되지 못한 한국을 개조해야 함을 역설
- ③ 도산 선생은 한국 개조의 시급성을 중시하고 시기를 놓치면 천만 년의 한이 될 것임을 강조
- ④ 도산 선생은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하며 이 일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됨을 강조: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가면 국민이 행복함
- ⑤ 도산 선생은 강산을 개조하면 관련 산업이 다방면에서 번성하고 과학과 정신분야에서의 발달, 나아가 생태, 인재, 인성, 예술발달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침을 강조
- ⑥ 도산 선생은 강산개조를 아니했을 경우에 국토가 황폐해지고 민족이 약해짐을 강조

- 4대강 살리기의 ‘4박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① 치수(治水) – ② 수질(水質) – ③ 생명을 포함하는 생태(生態) – ④ 친수(親水)가 조화되는 4박자 리듬을 보유하여 4대강 살리기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임
- 강산개조를 실현하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강이 강답게 변모되고 강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토로 재창조될 수 있음

※ 본 국토정책Brief에 인용된 문구는 “주요한 편저. 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에서 발췌하였음.

1.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강산개조론」을 주창함

-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강산개조론」을 주창
 - 1919년: 일본에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민족적 단결과 거국적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
 - 중국 상하이: 1919년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 선포됨
 - 위대한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문명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견지명의 「강산개조론」을 주창하는 연설을 행함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의 핵심골자

- ① 도산 선생은 행복의 어머니는 ‘문명’이며 문명의 어머니는 ‘개조’하는 일에 노력함이라고 함

“그려면 이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 얻을 것이오? 나는 이 행복의 어머니를 「문명」이라 하오…… 문명의 어머니는 「노력」이오…… 곧 개조하는 일에 노력함으로써 문명을 얻을 수 있소.”

- ② 도산 선생은 문명되지 못한 한국을 개조해야 함을 역설

“우리 한국은 개조하여야 하겠소. 이 행복이 없는 한국! 이 문명되지 못한 한국! 반드시 개조하여야 하겠소.”

- ③ 도산 선생은 한국 개조의 시급성을 중시하고 시기를 놓치면 천만 년의 한이 될 것임을 강조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한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오. 만일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 년의 한이 될 것이오.”

- ④ 도산 선생은 강과 산까지도 개조해야 하며 이 일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됨을 강조: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가면 국민이 행복함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있을까?』 하시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 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⑤ 도산 선생은 강산을 개조하면 관련 산업이 다방면에서 번성하고 과학과 정신분야에서의 발달, 나아가 생태, 인재, 인성, 예술발달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침을 강조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수리에 관한 일을 함으로 이를 쫓아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이 물자 방면뿐 아니라 다시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소. 저 산과 물이 개조되면 자연히 금수, 곤충, 魚鱉이 번식됩니다. 또 저 울창한 숲속과 잔잔한 물가에는 철인 도사와 시인 화객이 자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자연을 즐거워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미묘한 강산에서 예술이 발달되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오.”

⑥ 도산 선생은 강산개조를 아니했을 경우에 국토가 황폐해지고 민족이 약해짐을 강조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 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 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오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듯하시리라.”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지금부터 92년 전인 1919년 상하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강산(江山)개조를 주창 함. 연설 개요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개조의 사업을 잘하셨소. 그런 고로 그때에는 문명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소마는 근 대의 우리 조상들과 현대의 우리들은 개조사업을 아니하였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어니와 이제부터 우리는 이 대한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 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오. 만일 이 시기를 놓어버리면 천만 년의 유한이 될 것이오. 여러분이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만일 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와 나와 우리가 다 합하여 한국을 개조합시다. 즉 이 한국을 개조하여 문명한 한국을 만듭시다…… 우리 한국을 문명한 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조의 사업에 노력하여야 하겠소. 무엇을 개조하잖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 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들을 개조하고 있을까?』 하시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이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이제 우리나라에 저 문명스럽지 못한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한 행복이 되겠소. 그 목재로 집을 지으며 온갖 기구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하여 온갖 수리에 관한 일을 함으로 이를 쫓아서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사업이 크게 발달됩니다. 이 물자 방면뿐 아니라 다시 과학 방면과 정신 방면에도 큰 관계가 있소. 저 산과 물이 개조되면 자연히 금수, 곤충, 魚鱉이 번식됩니다. 또 저 울창한 숲속과 잔잔한 물가에는 철인 도사와 시인 화객이 자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자연을 즐거워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미묘한 강산에서 예술이 발달되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오.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 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 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오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그런즉 이 산과 강을 개조하고 아니함에 얼마나 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실 마음이 불 일 들풀하시리라. 비단 이 강과 산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다 이런 큰 관계가 있는 것이오. 그런 고로 모든 것을 다 개조하자 하였소…….”

※ 상기내용은 1919년(월일미상) 중국 상하이에서 행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개요 중에서 발췌함.

(출처 : 주요한 편저. 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

3. 4대강 살리기로 국토를 재창조

4대강 살리기의 ‘4박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 ① 치수(治水) – ② 수질(水質) – ③ 생명을 포함한 생태(生態) – ④ 친수(親水)가 조화되는 4박자 리듬을 보유



▲ 4대강 살리기의 ‘4박자’

- 강산개조를 구현하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강이 강답게 변모되고 강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토의 재창조가 이룩될 수 있음
- 4대강 살리기가 완료되면 융복합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임

▶ ▶ 치수효과

- 기후변화에 안전한 국토: 홍수조절 능력이 대폭 확충되어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비
- 13억m³(팔당댐의 5배)의 물자원을 추가 확보하여 물부족 및 가뭄에도 안전한 국토 재창조

▶ ▶ 수질효과

- 첨단 IT와 연계한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등으로 좋은 물(II급수)의 비율이 현재 76%에서 2012년에 86%로 증대
- 오염된 강이 깨끗해지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풍부하게 흐르는 강으로 변화되어 강의 가치가 새롭게 상승

▶ ▶ 생태효과

- 생태하천 929km, 생태습지가 35개소가 조성되는 등 현재보다 습지면적이 387만m² 증가
- 수질개선, 친환경 기반으로 강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도 증가하여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

▶ ▶ 친수효과

- 강과 인간이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건강·여가·산책·자전거 타기·수영 등 레포츠·관광 문화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 4대강의 수변공간은 친환경 국민건강회랑으로 변모하여 남녀노소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에 크게 이바지하는 친환경 건강복지공간으로 사랑받고 건강한 장수사회에도 기여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10.12.30)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ppt자료).
- 김의원(1982) 한국국토개발사 연구. 대학도서.
- 박양호(2009)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과 4대강 살리기. 국토정책Brief 제212호. 국토연구원.
- 위클리공감(2011.1.5) “4대강 살리기, 도산 ‘강산개조론’과 일치”. 안병소 안창호기념관 사무총장 인터뷰 기사(글·변윤재 데일리안 기자)
- 주요한 편저(1979) 안도산전서. 샘터사. pp544-549.
- 최정호 편(1994) 물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